

# ITU TELECOM 99에 다녀와서...



아·태위성통신협의회(APSCC)  
사무총장 이준원

## 순서

- |                |          |
|----------------|----------|
| 1. 개최 배경       | 나. 외국업체  |
| 2. 행사를 주관한 ITU | 6. 향후 계획 |
| 3. 행사개요        |          |
| 4. 행사 주요내역     |          |
| 가. 전시분야        |          |
| 나. 컨퍼런스 분야     |          |
| 5. 참가기관 현황     |          |
| 가. 국내업체        |          |

## 부록

1. 개회사
2. 행사 주요 장면

## 1. 개최 배경

지난 1971년부터 매 4년 주기로 개최하는 정보통신 올림픽이라고 일컬어지는 “ITU Telecom 99”가 지난 10월 9일부터 17일까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주최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2만 여 평의 전시장 면적을 갖춘 PALEXPO 국제 전시관에서 180여 개국 1000여 개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박람회는 세계 최대의 정보통신 행사로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쟁적으로 앞 다투어 소개되고 있어 과연 통신 올림픽이라고 불리워질만한 국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 2. 행사를 주관한 ITU

1865년에 탄생한 ITC(국제전보총회)와 1906년에 출범한 IRC(국제무선통신총회)를 ITC(국제통신총회)로 통합하기로 1932년 마드리드에서 결정하고 1934년 1월 1일 명칭을 ITU로 개칭하여 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1947년 10월 15일 UN산하의 특별기구로 편입되었고 본부 사무국을 스위스 베른에서 현재의 제네바로 옮기게 되었다. 1912년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IFRB)가 창설되어 점증하고 복잡해지는 주파수 배치를 총괄하고 주파수 스펙트럼을 관리하게 되었다. 1956년에는 CCIT와 CCIF가 통합되어 CCITT가 발족됨으로써 전신전화권고위원회 역할을 맡게 되었다. 위성 1호인 SPUTNIK 1호가 우주시대를 열고, 1963년 첫 인공위성이 궤도에 진입 됨으로써 1945년 Arthur C. Clarke이 제정한 정보전송을 위한 위성사용방법이 그 후 적용되게 되었다.

ITU의 업무관리 체계와 ITU사무국 조직 현황은 별표와 같고 현재 ITU를 총괄하는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은 일본 우정성 차관을 역임한 요시오 우즈미(Mr. Yosio Utzumi)가 지난 2월부터 133년 된 ITU 조직을 이끄는 제 16대 사무총장으로 재임 중이며 현재 ITU 가입국가는 189개국에 이르고 있다.

### 3. 행사개요

이번 박람회 참가인원은 각국 정부기관, 정보통신 업체, 일반 관람객, 언론기관 등을 포함하여 20만 명을 초과하였으며, 미국, 일본, 독일, 벨기에, 스위스, 한국 등 28개국이 국가관을 설치하고 에릭슨, 썬 마이크로 시스템, HP, 지멘스, 삼성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업들이 독자적인 개별 전시관을 마련하여 자기 기업의 특성과 이미지 부각 그리고 신상품 선전에 열을 올려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새 천년 21세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금세기 마지막 정보통신 빅 이벤트인 Telecom 99은 21세기 정보통신의 방향을 미리 들여다 볼 수 있는 것 외에도 전세계 정보통신업계 VIP, 경영자, 연구원, 취재진, 일반 관객들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종합예술과도 같고 이들은 부지런히 세일즈 외교,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새로운 인맥을 형성해가는 사교의 장소로 열심히 뛰며, 그리고 엄청난 홍보비를 쏟아 부으며 맹활약을 하고 있었다.

### 4. 행사 주요내역

#### 가. 전시분야

이번 전시회와 컨퍼런스를 통해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불리는 IMT-2000 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 즉 영상통신 이었다. 전시장의 주류를 이룬 것은 초고속데이터통신, 차세대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무선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장비들이 전시장을 메웠다. 그 중 많은 통신 업체들이 이동 화상전화, 이동 데이터통신 장비 등 초고속 광대역 무선 가입자 망과 관련한 장비를 전시한 점이 이번 박람회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다수의 통신장비 생산업체들이 아직 표준화도 되지 않은 무선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상품을 선보이는 등 표준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령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치중한 것도 이번 전시회의 한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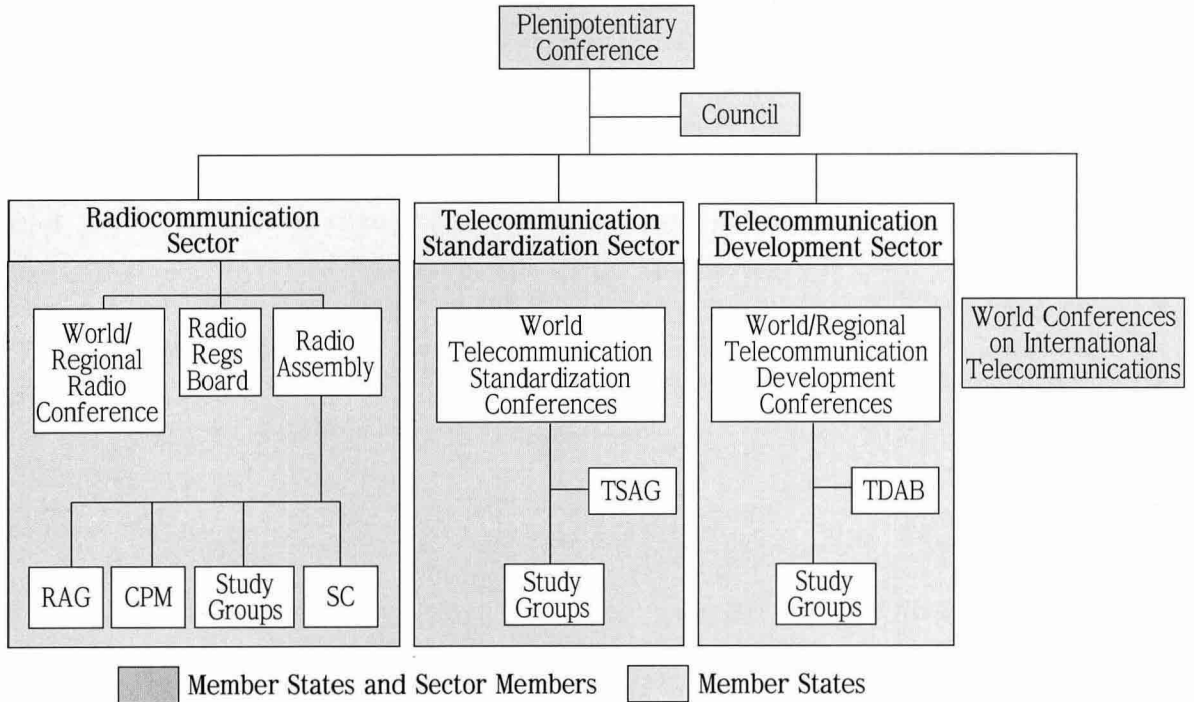
#### 나. 컨퍼런스 분야

이번 포럼에는 30여 개국에서 장관, 차관급 인사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 사장 등 정보통신 분야의 저명인사 600여명이 참석하여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을 통해서 정보통신 분야를 총망라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Telecom 99 + Interactive 99 포럼은 이전의 어떤 ITU포럼과는 다른 형태였다. 과거는 주로 최고 전문가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이제는 세계의 주요 통신정책 메이커로서 통신분야의 새로운 내용을 잘 전달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점이다. 그래서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적인 최고전문가들을 강사와 패널리스트, 즉 관계장관, 최고경영자, 정치인, 산업계전문가 등이 초빙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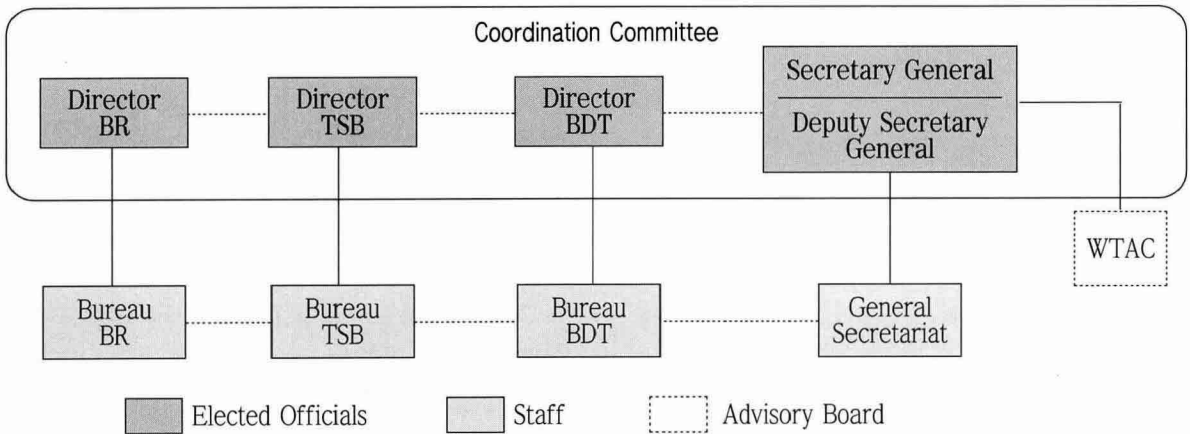
6일간에 걸쳐 Palexpo 제 7전시관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연관된 사회라는 주제로 토의를 거친 후 정보화 시대의 기업, 장애자를 위한 친근한 통신서비스, 통신기업의 투자, 인력자원의 쟁점사항, 인류생활 보조의 통신 서비스, 지적 네트워크 발표가 있었고 정책과 규제 분야에서는 관계최고경영자 회의, 경쟁체제, 이동통신 공개 정책 패널, 전자상거래 규제, 규제무역 쟁점사항, 규제토론, 시설투자 등이 진행되었고, 이어서 정보 인프라 개혁, 첨단기술-위성해법, 새로운 기술-지상 해법, 새로운 기본 기술, 이동통신-표준화, 3G 이동통신,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QOS관리, 접속망, 멀티미디어 응용, 인터넷 활용, 방송관련 포럼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받았고 이 모든 것들이 향후 통신분야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ITU 관리체계



- RAG : Radiocommunication Advisory Group
- CPM : 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s
- SC : Standardization Conference
- TSAG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 TDAB :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Advisory Board

☐ ITU 사무국 조직



- BR : Radiocommunication Bureau
- TSB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
- BDT :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Bureau
- WTAC : World Telecommunication Advisory Council

## 5. 참가기관 현황

### 가. 국내업체

이번 행사에 국내에서는 한국통신, ETRI, 성미전자, 에이스 테크놀로지, RF하이텍 등이 공동으로 한국관을 마련하여 그 동안 개발해온 다양한 첨단기술을 세계시장에 선보였으며, 전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상담실적을 올렸다. 그리고 삼성전자, LG정보통신, 현대전자 등은 단독 전시관을 마련하여 IMT-2000 시스템 등 첨단 정보통신 제품을 들여와 설치하고 시연회를 가짐으로써,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실질적인 성과도 많이 거둔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 안병엽 차관은 행사기간 중 12일에 마련된 한국의 날 행사에서 “사이버 시대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국제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관해 통신정책 국제 정상포럼에서 발표한 바 있다. 또 ITU 등 국제 주요 관계자들, 정부요인 및 정보통신 산업체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정보교류와 친선도모 등 유대관계를 가진 바 있다.

### 나. 외국업체

세계와 함께 (Join the World)라는 슬로건 아래 치루어진 이번 TELECOM 99+INTERACTIVE 99(8<sup>th</sup> World Telecom and 2<sup>nd</sup> Interactive Exhibition and Forum)는 Palexpo (1218, Grand-Saconnex, Geneva, Switzerland) 에서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에 걸쳐 열렸으며, 주요 이벤트의 하나로 전시회가 열렸으며, 이번 전시회에는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하였고, 정부기관에서부터 산업체, 일반에 이르기까지 20여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방문하였으며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는 무역관련 전문 방문자에게만, 10월 16~17일 양일간은 일반 관람객에 공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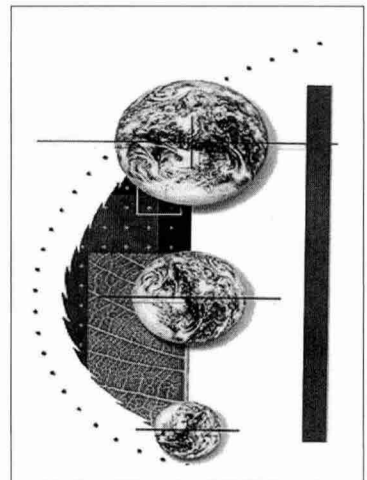
전시장은 8개의 전시관에 실내 63,000m<sup>2</sup>, 실외 2,000m<sup>2</sup>의 면적이 마련되었고, 한국을 위시하여 벨지움, 캐나다, 미국, 러시아, 영국, 스위스, 일본 등 28개의 국가관이 개설되어 나라마다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선보이며 국가 홍보와 기업 마케팅이 여념이 없는 것을 보며 경쟁시대를 실감나게 하였다.

아울러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캐나다, 러시아 등 주요 기업들은 국가관 외에 별도의 대형 기업 독립관에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밝아올 New Millennium의 통신시장 주도권 확보에 치열한 경쟁의 장을 펼쳤다.

## 6. 향후 계획

4년마다 주기적으로 열리는 ITU TELECOM 행사는 호주 같은 일부 국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4년 후인 2003년에 ITU TELECOM World 2003으로 개최하기로 1999년 9월 30일 TELECOM Board에서 결정되어 ITU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정부, 기업체, 연구소, 유관단체 등에서도 지금부터 미리 4년 후에 벌어질 통신올림픽이라 불리는 제 9차 World Telecommunications Exhibition and Forum에 차질 없이 미리 대비함으로써 2003년에는 세계의 통신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두가 힘과 지혜를 그리고 슬기를 모아야 할 것이다.



## 부록1 개회사(ITU 사무총장 Mr. Yosio Utsumi)

신사 숙녀 여러분, 텔레콤 99와 인터랙티브 99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ITU와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때입니다. 이 한 주 동안 한 사업의 미래가 좌우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활발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일하는 전문가들로서, 우리는 정보통신 분야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통신 수단이 미흡한 환경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15년 전에 ITU에서 “미씽링크”(잃어버린 연결고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1세기 초반에는 인류전체가 전화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언급되었습니다. 사람의 활동범위 내에서 통신수단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것을 말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 보고서에 발표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과학기술 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이 목표에 곧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정보통신의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이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위성통신, 디지털기술이 바로 이러한 새로운 과학기술 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더 해주고 저렴한 가격에 제공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함으로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절감되기도 합니다. 사업자들의 운용 비용도 절감되고 고객들은 싼 가격에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에 통신이 제공 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통신수단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과 3년 안에 2억7천6백만 명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이 수치를 전화기의 100년 역사를 걸쳐서 설치한 2억4천3백만 개의 전화선과 비교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도 이동통신기술이 이 나라들의 번영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을 이용하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설치비용이 저렴해집니다. 이미 여러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전화선보다 이동통신단말기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는 “마이크로 크레딧”(미세 신용)을 도입함으로써 이동통신 단말기를 수많은 마을에 쓰고 있습니다. 이 성공적인 시스템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작은 액수의 융자를 줌으로써 이동통신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ITU가 개최하는 텔레콤 99은 현재와 미래에 새로 도입되는 기술들을 전시하고 시범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개발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발표하는 세계적인 포럼을 진행합니다.

새로운 기술들을 관찰하시고 계속적인 통신 발전을 갈망하는 마음이 짝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5년 전에 발표한 보고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교환하고 모든 인류가 통신 수단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시오 이 목표는 불가능한 과제가 아닙니다.

위성통신과 광섬유기술을 토대로 지난 10년간 통신의 혁신적인 발전은 우리의 목표를 실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세계경제가 개방의 바람을 타면서 개인자본이 쉽게 이동하면서 통신에 투자가 집중되어 우리의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15년 전에 발표한 목표에 점점 가까워지는 현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목표는 바로 21세기 초반에 전 인류가 인터넷을 포함한 현대적인 통신수단에 접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전화선이 구축되면, 이 목표는 처음에 세웠던 목표에 비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풍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경제로 발돋움한 과정에서 엄청난 부의 창출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높였습니다. 현재의 경제구조에서 정보화중심의 경제로 바뀌기는 과정에서 “퀀텀” 발전(도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화 경제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이 경제에 필요한 기술들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목표는 실현가능 합니다. 텔레콤 99에서 이 목표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 부록2 행사 주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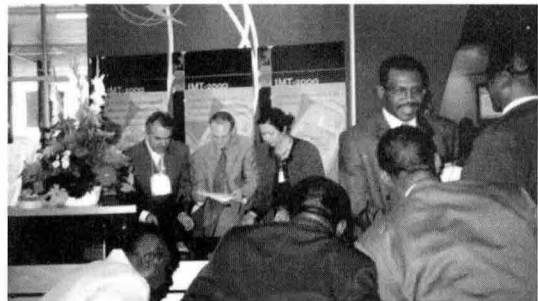
<PALEXPO ARENA에서 10월 9일  
거행된 개회식 선포 장면>



<PALEXPO 제 4전시관에 위치한  
한국관과 한국통신 등 국내 참여 업체들>



<제 7전시관의 거대한 전시회 장면과  
Globalstar 부스>



<제 1 전시관 특별 부수에서 행사진행에  
여념이 없는 ITU 간부들>